쓰레기 봉투·대형폐기물 처리값 오르나

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현실화 추진 청소예산 자립도 낮은데다 손실액 600억 수준 주민부담률 전국 최하위… 11월쯤 용역 결과

내년부터 제주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과 대형폐기물 처리값 등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 입수수료 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결과 는 11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반영하고 신 규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등의 사

도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최고가 노형 14억9000만원

6월 기준 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 최

고가는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으로 14억9000만원(대지 면적 408.28㎡)에 이르는 것으로 조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

독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그 결과, 도 전체 개별주택은 2021

호이며 가격은 4180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1311

호(2927억800만원) ·서귀포시 701호

최고가격은 노형동 소재지의 한

개별주택이며, 최저가격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

으로 1400만원(대지면적 116.7㎡)

사유별로 보면, 신축 및 증축한 주

택이 1566호, 주택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 132호, 용도변경 등 기타가 314호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78호, 다

가구주택 224호, 기타 주상복합건물

의 주택부분 등이 510호로 집계됐다.

의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행정시

세무과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

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

스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달 30일까지 공시가격 이

(1253억3300만원)였다.

으로 조사됐다.

심의하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됐다.

회경제적 여건 및 원가 변경사항 등 을 감안해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전국 평균대비 낮은 청소예산 자립도 등 을 제시했다.

우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6 년 23.3%, 2017년 31.5%로 나아지고 있지만, 모두 전국 평균(2016년 31.6 %·2017년 32.5%)과 비교해 낮은 수 준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도 2016년 도 589억6500만원, 2017년도 630억 8300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눠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주민부담률도 전 국 최하위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3%, 2017년 13.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12.5%에 이어 16위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주민부담률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서울(62.7%)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의 경 우. 2017년도 기준 18.5%로 전국 평 균(30.2%)은 물론 환경부 지침 (80%)에도 크게 못미친다.

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지 난 2017년 1월 인상 후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가격을 보면, 5ℓ봉투 가 9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났으며, 10 ℓ 봉투 180→240원, 20 ℓ 봉투 500 →700원, 30 ℓ 봉투 750→1050원, 50 ℓ 봉투 1250→1750원으로 40% 증가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종량 제 봉투값 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처 리 수수료 등의 인상도 고민하고 있 다. 제주도 관게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커 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 을 적용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 소화하면서도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9월의 끝자락, 제주 바다를 즐기며… 9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의 바다를 만 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건물 균열에 지반 붕괴될라…" 잇단 가을태풍에 안전점검 요청 증가

제주시지역 작년보다 갑절↑

제주시 지역에서 가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지고 건물 벽체 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점 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 물균열이나 축대 및 지반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 요청은 연평

균 3~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건 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했고 9월 에만 4건으로 가을철 집중호우와 태 풍 영향인 것으로 예측된다.

전점검은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가 신청하면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관 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 문단이 현장을 확인해 점검 한 후 재

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축제행사장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및 시설물 안전 전문가 등으로 안전 점검반을 편성, 사전 점검을 통해 시 민들이 안전하게 축제에 참여해 즐 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축제 및 위 축대 붕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안 험시설물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시민모두 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데 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서귀포 치유의 숲에 버스노선 생기나

숲 입구 회전교차로 공사 시 "도에도 노선 운행 건의"

속보=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 가 조만간 진행된다. 오는 연말까지 회전교차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치유 의 숲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버스노 선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 차 추경에서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치 유의 숲 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 사를 곧 발주할 계획이다. 버스노선 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본보 2018년 10월 18일 7면)에 따라 앞으로 버스노선 추진이 가능한 환 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2016년 6월에 개장한 치유의 숲은 일반탐방과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개장 첫해 3만6100명 이던 탐방객이 2017년 6만여명, 2018 년 7만5000여명으로 증가 추세다. 스 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현대 인들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숲의 치유 효과에 관심을 가진 영향이다.

하지만 치유의 숲을 경유하는 버 스노선이 없어 호근동 주민들도 노

선 운영을 서귀포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 객이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서귀포시는 치유의 숲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검 토해 왔지만 버스 운행시 종점이 될 숲 입구에서 유턴할 공간 부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시는 이어 버스 유 턴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버 스회사, 교통안전공단, 제주도 대중 교통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 장토론회와 지적측량 등을 거쳐 9월 중순에는 현장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를 위한 관계기관 설명회도 열었다.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용역 중으로 조만간 공사를 발주해 12월 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최근 제주도 대중교통과 에 치유의 숲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버스가 경유하도록 노선 조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 는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면 제주 도에서도 치유의 숲을 경유하는 버 스노선 조정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작은도서관 작년 휴·폐관만 90여곳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이 지난해에만 90여개가 휴·폐관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관리에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 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대안정치연・ 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 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휴·폐관한 작은도서관은 총 9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은 2017년 4개소, 2018년 5개소, 2019 년 6개소로 매해 1개소씩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2017년

135개소, 2018년 138개소에서 2019 년 40개소로 대폭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신규 도서관이 413개 개소한 반면, 휴·폐관 작은도 서관은 468개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휴·폐관이 많은 이유는 매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기존 작은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 하고 정부 차원의 '작은도서관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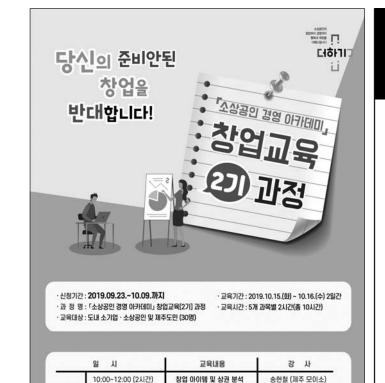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일몰 앞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주민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시 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에 대한 주 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민설명회 일정은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공원 관련, 10일 오후 6시30 분 건입동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 관 련 설명회가 각각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 배경, 절차 등을 설명 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이소진기자

기업 노무관리 기초 신기록 노무사 제주도 창업시장의 이하 배창봉 (제주관광대학교) 및 성공사례 소 : 제주시 연북로 33(KT&G건물), 4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실 수료혜택: ① 4과목 이상 수료 시 이수증 발급(이수시간 명시) ② 5과목 이수시 재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창업) 추천서 발급 가능 신청방법: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접수 · 기타안내 : 교육비 전액 무료 문 의 : ☎ 064)758-5710 김민애 주임 | www.jejusc.kr | Fax.758-5712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세무 실무

점포계약 및 경영법률

오승진 회계사

차영균 변호사

13:00~15:00 (2시간)

15:00~17:00 (2시간)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칭)제 주북부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설립을위한 창립총 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11:00

2. 장 소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회의실

3.의 안

1)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2) 정관(안) 확정의 건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의 건 4) 임원 선출의 건

5) 기타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4. 참석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레미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 문의처: ☎ 064)757-7750

(가칭)제주북부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발기인대표 고영만 외 6인

'2019 전도학생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후원으로, 제 573돌 한글날을 맞아 '2019 전도학생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대상 제주도 내 초 중 고 학생

■ 응모 마감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17:00까지

■ 응모 편수

「시」부문, 「산문」부문 학교별 각 5편 내외

■ 응모요령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이메일 주소: jesamrak@daum.net)

- 가급적(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제출 요망 - 직접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이도1동)

■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사무처장 (☎ 010-3694-1266)

■ 시상 내용 산문 부문 시상 인원 시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명 **최우수상** 3명(초중고 각 1명) 3명(초중고 각 1명) 6명 6명(초중고 각 2명) 6명(초중고 각 2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장 15명(초7, 중5, 고3) ┃ 15명(초7, 중5, 고3) 30명

1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시상 내용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수상자 수가 증(감)할 수 있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회장 김 재 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총동문 어울림한마당 알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문 회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 발전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제주사대부고 총동문 어울림 한마당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 회원님과 가족 여러분이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2019. 10. 6.(일) 개회식 10:00

■ 장 소 : **본교 운동장**

■ 주 최:사대부고 총동문회

■ 주 관: 3회, 13회, 23회, 33회

■ 연락처 : 총동문 회장 신호철 010-3898-2789 3회 회장 박영석 010-3036-5111

13회 회장 양영식 010-9398-557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신 호 철